

# 주가가 올라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

동서남북

김 은 정  
경제부 차장

주가지수가 하루에 99.9% 폭락한 나라 있다. 이 정도면 나라 망하는 수준인데 아무렇지 않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 사실에 별 관심이 없는지 관련 보도를 찾아볼 수가 없다.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더는 놀랄지 않은 세상이 됐다. 베네수엘라 증권거래소는 지난 7월 25일 53만 2713포인트로 마감한 대표 지수 IBC를 다음 거래일에 532.71포인트로 놓고 거래를 시작했다. 지수를 1000분의 1만큼 낮추는 일종의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화폐 단위 변경)'을 단행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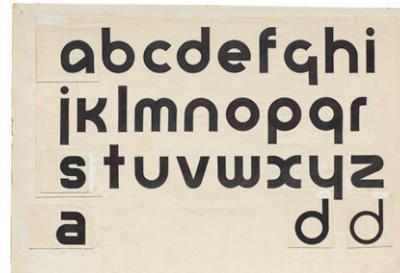
한때 세계 4위 부국이던 베네수엘라가 후진국으로 추락한 스토리는 세계인이 안다. 석유 의존도 과다, 정부 부패, 포퓰리즘을 앞세운 좌파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 이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는 커녕 4000달러에도 못 미친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현재 진행형이다. 2018년 13만%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은 후 화폐 개혁으로 물가가 잡히는 듯했지만, 올해 다시 물가 상승률이 200% 넘게 치솟고 있다.

인플레는 주가도 폭등시켰다. 가진

현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걸 지켜본 현지인들은 주식·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사 모았다. 2018년 주가 상승률이 무려 7만% 넘었다. 올해도 주가는 500% 넘게 올라 지수 조정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47% 급등한 상태다. 하지만 이 나라 캐미 누구도 부자가 됐다거나 행복해졌다 말하지 않는다. 자국 화폐 불리바르 가치는 달러 대비 반토막이고, 이 나라 국민의 삶의 질은 오늘도 후퇴하는 중이다.

베네수엘라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면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그 초입에 주가지수 1000분의 1로 낮춘 포퓰리즘 국가의 섬뜩한 역설 현실과 괴리된 증시는 허망할 뿐 주가 짚착 말고 경제부터 살려야

있는 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듦다. 8조 7000억 원어치 1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뿌려진 지 한 달이 지나자, 많은 사람이 2차 쿠폰을 기다리고 있다. 자영업자들도 "반짝 장사 잘되더니 도로 제자리"라고 아우성이다. 재정 헐어 돈 뿐더러 쓸 돈이 없어서 법인세를 올리기로 했다. 대법원이 유료화가 맞다고 손들이 준 일산대교는 다시 무료화가 추진된다는 소리마저 들린다. 2021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선 나가려고 지시장을 던지며 마지막으로 결재한 게 '민자 사업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였다. 노동자가 불법 파업



헤르베르트 바이어, 유니버설 서체의 원본 라터링. 1925년, 종이판에 잉크와 구아슈, 31.8×23.5cm, 샌프란시스코 레터풀 아카이브 소장.

을 높였다. 획의 끝을 단순화하고 두께를 균일하게 유지했으며, 심지어 대문자를 없애고 소문자만 사용했다.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유니버설 서체는 오늘날 혁신을 표방하는 수많은 기업의 로고 속에 건재하다. 혁신의 중심에는 언제나 기능이라는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바우하우스와 바이어의 실험이 증명하는 것이다.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기본 서체 목록에서 'Bauhaus 93'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1919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시작된 바우하우스는 예술·공예·기술의 경계를 허물고 기능과 조형의 통합을 추구한 모더니즘 디자인 운동이자 학교였다. '바우하우스 93'은, 실제로 바우하우스 교수였던 헤르베르트 바이어(Herbert Bayer·1900~1985)가 1925년에 개발한 '유니버설 서체'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1925년은 바우하우스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극우 민족주의가 드세하던 독일에서 정치적 압박과 재정난으로 존속이 어려워진 바우하우

스는 혁신적 산업 도시로 성장하던 데 사우의 초청을 받아 학교를 옮겼다. 데사우에 새로 지은 캠퍼스는 철근 콘크리트와 강철, 전면 유리 패사드로 구성되어 투명하고 개방적인 공간을 구현했고, 이 건물은 이후 현대 건축의 상징이 됐다.

1921년 바우하우스 바이마르에 입학해 클레와 칸디스키에게 기초를 배운 바이어는, 졸업 직후 데사우에서 그라피 디자인 교원이 됐다. 그의 서체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바우하우스의 합리주의 정신을 글자에 적용한 실험이었다. 정보 전달이라는 글자의 본질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장식을 제거하고, 원과 직선 같은 기본 도형으로 알파벳을 재구성해 가독성

을 높였다. 획의 끝을 단순화하고 두께를 균일하게 유지했으며, 심지어 대문자를 없애고 소문자만 사용했다.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유니버설 서체는 오늘날 혁신을 표방하는 수많은 기업의 로고 속에 건재하다. 혁신의 중심에는 언제나 기능이라는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바우하우스와 바이어의 실험이 증명하는 것이다.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은 장관급이 아니라 일반 공직이라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란 사실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음주 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87%로 면허가 취소돼야 하는 완전 만취 상태였다. 그래 놓고 교육감이 되자 음주 운전을 한 교직원 10명을 중징계했다. 내로남불이다. 석사 논문을 쓰면서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신문 기사를 그대로 베껴 쓰기도 했다. 딸이 낸 책을 자신의 SNS에 흥보하며 "꼭 구입"이라고 했다.

최 후보자는 16차례 방북했는데 "학교 통일 교육이 힘든 이유는 반공 교육을 받은 다수의 교사 때문"이라고도 했다. 김정은이 통일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선 뭐라 할 건지 궁금하다.

그는 SNS에 천안함 폭침을 둘러싼 음모론을 공유하고, 북을 친양하는 단체에 후원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날을 '팅팅절'로 부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속어를 썼다. 입시 비리를 저지른 조국 전 장관을 감싸는 글을 수차례 올렸을 뿐 아니라 비서 성폭행

## 特集

### 특집으로 상대 후보 없애 지방선거 이기려는 민주당

그런 민주당이 국힘 소속 지자체장들과 계엄을 엮어 수사를 요구한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한 득표 계산 때문일 것이다.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광역지자체는 최근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당이 앞섰지만 3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했던 지역들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탈환해야 할 지역들이다. 민주당 후보로 서울시장 등으로 출마를 검토 중인 사람들이 국힘 지자체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한 것도 너무 노골적이다.

민주당은 특집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늘리고 수사 기간도 연장하는 특집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거기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도 준비하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에서 국힘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특집도 자신들이 추천하고 임명하니 내란재판부까지 같은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침해할 '소지'가 아니라 심각한 침해다. 특집과 특별재판부로 상대 당 후보를 제거해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빌상은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시도한 적 없는 일이다.

### 밀실서 주요 내용 정한 뒤 공청회 여는 '검찰 개혁'

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4일 국회에서 이른바 '검찰 개혁' 관련 첫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 측과 법조계 인사들이 주요 쟁점을 토론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당정은 이미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방향을 정한 상태다. 법안 처리 시한까지 25일로 못 박았다. 그래 놓고 여는 공청회는 어떤 의미가 있나. 형식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처럼 보이려는 것이다.

'검찰 개혁' 입법 과정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지금 검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게 순서다. 그러나 이 과정은 모두 생략된 채 검찰 폐지라는 결론만 나와 있다. 공소청과 증수청 신설 등 세부적인 방안은 여권 내부에서 비공개로 논의 중이다. 최근에는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 장관, 윤호중 행안 장관이 비공개로 만난 사실이 알려졌는데, 그 결과 증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가기로 됐다.

다고 박지원 의원이 밝혔다. 박 의원 말이 사실이라면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문제를 몇몇이 밀실에서 결정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공청회는 무엇 하러 여다.

대통령실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줄곧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며 신중한 토론과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그때마다 민주당에서는 다른 소리가 나왔다. 이 대통령이 "내가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 밝힌 날, 정청래 대표는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했다. 대통령과 당시 엇박자를 내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민주당 뜻대로 되는 일이 반복됐다. 실제로 이견이 있는지, 아니면 '약속 대변'을 하는 것인지 국민은 알 길이 없다. 어느 쪽이든 국민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형사 사법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 모두가 당사자가 된다. 이런 제도를 바꾸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수다. 대통령실도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고 했다. 공청회 한 번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더 해야 한다.

### 장관 아니라 어떤 공직도 맡아선 안 될 사람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은 장관급이 아니라 일반 공직이라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란 사실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음주 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87%로 면허가 취소돼야 하는 완전 만취 상태였다. 그래 놓고 교육감이 되자 음주 운전을 한 교직원 10명을 중징계했다. 내로남불이다. 석사 논문을 쓰면서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신문 기사를 그대로 베껴 쓰기도 했다. 딸이 낸 책을 자신의 SNS에 흥보하며 "꼭 구입"이라고 했다.

최 후보자는 16차례 방북했는데 "학교 통일 교육이 힘든 이유는 반공 교육을 받은 다수의 교사 때문"이라고도 했다. 김정은이 통일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선 뭐라 할 건지 궁금하다. 그는 SNS에 천안함 폭침을 둘러싼 음모론을 공유하고, 북을 친양하는 단체에 후원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날을 '팅팅절'로 부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속어를 썼다. 입시 비리를 저지른 조국 전 장관을 감싸는 글을 수차례 올렸을 뿐 아니라 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사법 살인'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까지 공유했다. 모두 반(反)교육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상습 체납자다. 최근 7년간 5차례 종합소득세를 연체했다. 재산세도 제때 내지 않아 부부 공동 소유인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했다. 과태료·지방세 미납으로 자동차가 압류된 것도 14차례에 달한다. 교수 출신인 주 후보자는 '바쁜 일정 틈' '세금 납부 미숙'이라고 했지만 자기 집이 압류당할 때까지 세금 낼 시간도 없을 수 있나.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세금·과태료를 미루지 않는 대다수 국민은 이런 해명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후보자가 기업과 시장에는 '공정'을 강조하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두 후보자 모두 자신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면서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청문회 중인·참고인이 '0명'이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투성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보자고 하고, 민주당은 청문회를 사실상 없애는 방법을 쓰고 있다. 개탄할 일이다.

###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97]

#### 탄생 100년 된 유니버설 서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기본 서체 목록에서 'Bauhaus 93'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1919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시작된 바우하우스는 예술·공예·기술의 경계를 허물고 기능과 조형의 통합을 추구한 모더니즘 디자인 운동이자 학교였다. '바우하우스 93'은, 실제로 바우하우스 교수였던 헤르베르트 바이어(Herbert Bayer·1900~1985)가 1925년에 개발한 '유니버설 서체'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1925년은 바우하우스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극우 민족주의가 드세하던 독일에서 정치적 압박과 재정난으로 존속이 어려워진 바우하우

스는 혁신적 산업 도시로 성장하던 데 사우의 초청을 받아 학교를 옮겼다. 데사우에 새로 지은 캠퍼스는 철근 콘크리트와 강철, 전면 유리 패사드로 구성되어 투명하고 개방적인 공간을 구현했고, 이 건물은 이후 현대 건축의 상징이 됐다.

1921년 바우하우스 바이마르에 입학해 클레와 칸디스키에게 기초를 배운 바이어는, 졸업 직후 데사우에서 그라피 디자인 교원이 됐다. 그의 서체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바우하우스의 합리주의 정신을 글자에 적용한 실험이었다. 정보 전달이라는 글자의 본질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장식을 제거하고, 원과 직선 같은 기본 도형으로 알파벳을 재구성해 가독성

을 높였다. 획의 끝을 단순화하고 두께를 균일하게 유지했으며, 심지어 대문자를 없애고 소문자만 사용했다.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유니버설 서체는 오늘날 혁신을 표방하는 수많은 기업의 로고 속에 건재하다. 혁신의 중심에는 언제나 기능이라는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바우하우스와 바이어의 실험이 증명하는 것이다.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 교회는 미국 문명의 DNA

## 한국의 잭 스미스 조은석, 미국 건국정신의 핵심 건드렸다

뉴데일리  
newdaily.co.kr

미국, 종교 자유 찾아 영국 떠난 청교도들의 나라  
미국적 가치와 자유의 성전이 바로 교회



▲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교회 압수수색을 언급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특검을 설명했다. 우리 층 풍역이 영어로 특검을 언급하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풍역의 말을 끊고 "혹시 그 특검이 정신 이상자 (deranged) 잭 스미스 아니야" "미국에서 데려간 것 아니야" "그는 병든 사람(sick individual)"이라고 했다. 잭 스미스는 바이든이 대통령 시절 임명된 특검. 트럼프를 기소했으나, 트럼프 대선 승리 후 공소를 철회하고 사임했다. © 연합뉴스

[편집자 주] SNS에 보면 언론인이 아니면서도 기자들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컨텐츠를 올리는 분들이 많다. 유튜브가 방송 뉴스를 잡아먹는다고 한다. 페이스북은 신문·잡지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뉴 미디어가 올드 미디어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방송 시청률이 하락하고, 신문·잡

지 발행부수·열독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 이 같은 흐름을 말해준다.

자연스럽게 기존 주류 언론(레거시 미디어)이 주도하던 의제설정(아젠다 세팅) 능력도 감소되고 있다. KBS·조중의 여론 조성 프레임 반경이 훌쩍 줄었다.

레거시 미디어 종사자들을 언론인·기자라고 한다. 뉴 미디어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디지털 크리에이터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김연표 씨는 페이스북에서 활동 중인 디지털 크리에이터다. 유려한 글 솜씨와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웨민한 기자들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글을 Peter Kim 이란 이름으로 올리고 있다.

이재명 정권 탄생 후 몰아치고 있는 이른바 내란 특검의 교회 압수수색 파장이 태평양을 건넜다. 한미 정상회담 소재로까지 등장했다. 레거시 미디어들은 이 문제를 애써서 해프닝 정도로 축소 보도했다.

Peter Kim은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에 접근했다. 다음은 그가 북미에 올린 글 전문이다.